

2월 27일
나렛의 성 그레고리오 아빠스 학자

교회 학자 공통 670면, 또는 성인 공통: 수도자 700면.

제1독서

〈나는 지혜를 건강이나 미모보다 더 사랑하였다.〉

지혜서의 말씀입니다.

7,7-10.15-16

- 7 내가 기도하자 나에게 예지가 주어지고
간청을 올리자 지혜의 영이 나에게 왔다.
- 8 나는 지혜를 왕홀과 왕좌보다 더 좋아하고
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
- 9 값은 헤아릴 수 없는 보석도 지혜와 견주지 않았다.
은 세상의 금도 지혜와 마주하면 한 줌의 모래이고
은도 지혜 앞에서는 진흙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.
- 10 나는 지혜를 건강이나 미모보다 더 사랑하고
빛보다 지혜를 갖기를 선호하였다.
지혜에서 끊임없이 광채가 나오기 때문이다.
- 15 하느님께서 내가 당신의 뜻에 따라 말하고
내가 받은 것들에 맞갖은 생각을 하게 해 주시기를 빈다.
그분께서 바로 지혜의 인도자이시고 현인들의 지도자이시며
- 16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말이,
모든 예지와 일숨씨가 그분 손안에 있기 때문이다.
주님의 말씀입니다.

화답송

시편 37(36),3-4.5-6.30-31(◎ 30ㄱ)

- ◎ 의인의 입은 지혜를 자아낸다.
- 주님을 믿으며 좋은 일 하고
이 땅에 살며 신의를 지켜라.
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.
네 마음이 청하는 대로 주시리라. ◎
- 주님께 네 길을 맡기고 신뢰하여라.

그분이 몸소 해 주시리라.
 빛처럼 네 정의를 빛내시고
 대낮처럼 네 공정을 밝히시리라.

- ◎ 의인의 입은 지혜를 자아낸다.
- 의인의 입은 지혜를 자아내고
 그의 혀는 올바른 것을 말한다.
 하느님의 가르침 그 마음에 있으니
 걸음걸음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다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6,63.68 참조

- (◎ 알렐루야.)
- 주님,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.
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.
- (◎ 알렐루야.)

복음

〈예수님께서서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.〉

✦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7,21-29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- 21 “나에게 ‘주님, 주님!’ 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.
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.
- 22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,
 ‘주님, 주님!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,
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,
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?’ 하고 말할 것이다.
- 23 그때에 나는 그들에게, ‘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.
 내게서 물러들 가라,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!’ 하고 선언할 것이다.
- 24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
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.
- 25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.
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.
- 26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

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.

- 27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.
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.”
- 28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.
- 29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.
주님의 말씀입니다.

* 이 전례문은 주교회의 2021년 춘계 정기 총회의 승인을 거쳐 사도좌 추인(2021년 4월 17일, 경신성사성, Prot. N. 164/21)을 받았습니다.